

찰기 시나리오

S#. 1 집

[거실]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 부부. 남편 소파에 누운채로, 아내 소파에 등을 대고 앉아 간식을 먹는다.

~ 일상대화 ~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내 : (티비에 시선을 고정한 채) 00이 왔나본데?

남편 : (몸을 일으키며) 그래? 벌써 학원 끝났나?

남편 딸을 마중하러 복도로 나아간다

[복도]

남편 :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딸에게 향한다) 딸 오늘 일찍왔네?? 저녁 뭐 먹을..(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 딸이아닌 강도의 모습에 멈춘다. 긴장한 상태로 정지.

주춤하던 강도, 갑자기 남편을 벽으로 밀치며 짓누른다.

남편 : 으윽

소란에 일어나 다가오는 부인

아내 : 무슨일이야.. (강도를 마주하고) 헉!

남편 아내를 바라보곤 급하게 소리친다.

남편 : 방으로 들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아내 뒷걸음질치며 방으로 들어가 신고한다.

짓눌려진 채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남편. 시선이 오른쪽 아래의 화분에 향한다. 화분을 쩍싸게 잡아 강도의 머리를 내리친다.

퍽! (화분에 맞은 소리)

쿵! (장식장에 박은 소리)

강도의 근처에 있던 장식장을 비추며 암전.

장식장에 머리를 박고 피를 흘리며 그대로 쓰러진 강도.

큰 소리에 달려온 아내가 강도의 모습에 기겁해 소리지른다.

아내 : 까악!!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화분을 들고있는 채로 쓰러진 강도를 바라보는 남편. 당황해 동공이 흔들린다. 이내 눈을 질끔 감는다.

아파트 외관을 비추며 암전

[안방]

뜬눈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남편. 옆으로 돌아 누워 뒤척인다.

(나레이션 : (사고당시 경찰과의 대화)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게 마침 가해자가 흥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서.. 네. 과잉방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잖아요.. 사망자라서 진술을 받을 수도 없구요..)

남편, 이내 잠을 포기하고 일어난다.

[거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는 남편. 물과 함께 약을 먹는다. 컵을 내려놓고 약에게 포커스.

[안방]

남편 다시 누워 잠깐 멍때리다가, 눈을 감는다.

S#. 2 황량한 길거리 (초저녁, 새벽)

길거리에 서있는 남편. 멍한듯 서있다가, 앞에 테이블에 놓여진 가방을 보고 다가선다.

가방을 열고 돈다발이 들어있다. 흥분한듯 돈을 마구 집어드는 남편.

돈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리며 확인하듯 바라본다. 가짜지폐였다.

멍한 표정의 남편 위로 돈다발이 후두둑 날린다.

S#. 3 지하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가득 서있는 사람들. 지하철 출입구에 줄을 서있는 남편.
남편 앞의 여자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있다. (혹은 기사)

(뉴스 나레이션 작게 : 8시뉴스입니다. 과잉방위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

주머니 속 남편의 휴대폰에 벨이 울린다. 주섬주섬 전화를 받는 남편.
남편: 여보세요?(잘못들은듯이) 네?

S#. 4 경찰서 앞 (낮)

경찰서에서 걸어나오는 남편. 어딘가 불안하고 찡찡한듯, 이게 맞나 싶은 표정으로 걸어 나온다.
멈춰서서 경찰서에서 받은 훈장을 보는 남편. 한참을 바라보다, 경찰서 쪽을 고개만 돌려 바라본다.

S#. 5 뉴스 자료화면

(은은히 웃고있는 아나운서)악질 연쇄살인마 000을 목졸라 살해한 한 시민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으로, 저번 과잉방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썸네일, 기사, 각종 커뮤니티 글]

S#. 6 길거리 (낮)

시끌벅적한 길거리, 웃고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기사를 두고 행복한 듯한 표정을 보이는 시민들. *엑스트라

S#. 7 학교 (낮)

[복도]

복도를 걷고있는 딸. 주위로 친구들이 아빠의 사건에 대해 물으며 축하한다. 모두가 딸을 바라보며 축하해주는 분위기.

친구1: (멀리서 뛰어와 어깨동무를 하며) 야! 너네 아빠 강도 응징했다매~! 완전 모범 시민이시다

딸 : 에이 뭐 ㅋㅋㅋ

친구2: (친구1과 같이오던) 참교육 제대로 하셨네 완전 영웅임

친구1: 너무 다행이야 진짜 ㅋㅋ 법이 이제야 잘~ 돌아간다~

주위로 다른 학생들이 수군대며 영웅보듯 여긴다.

[교실]

자리에 앉으면서 까지 축하받는 딸의 모습.

친구3: 00아 너네 아버지 표창장 받았

딸 : 아 그만그만~ 옳은 일 한건데 뭐..

친구4. (딸을 향해 뒤를 돌아보며 앉아서) 근데 완전 영웅이시다 진짜 ㅋㅋ 사회에 꼭 필요한..

딸 : 그렇지 뭐 ㅎㅎ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친구3: 너도 니네 아빠좀 본받아라 야

딸 : 뭐래 진짜ㅋㅋㅋ

[~ 수다소리가 들리며 장면전환]

S#. 8 사무실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남편. * 남편주변 엑스트라 필요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린다. 기분 좋게 전화를 받는 남편.

남편: 네 여보세요~?

남편 잠깐 멈칫한다.

남편: (정색한채) .. 뭐라구요?

S#. 9 회사 근처 길거리

정돈되지 않은 채 허겁지겁 어디론가 뛰어나가는 남편. 당황, 분노, 억울해보인다.

S#. 10 교무실

딸과 담임, 교장, 아내, 경찰이 앉아있고, 남편이 문을 연다. 딸의 얼굴이 말이 아니다.

남편 딸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허둥지둥 딸을 본다.

남편 : 어떻게 된거야!! 누가그랬어, 어? 괜찮아? 어떤새끼가이런거야? 응?

아빠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는 딸.

담임, 머리를 매만지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남편과 딸을 지켜본다.

담임 : 자..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것 좀 보시죠.

담임, 핸드폰으로 유튜브 화면을 보여준다.

[화면전환 - 인터넷 자료]

담임 : 이게.. 딸의 신상이 온 인터넷에 퍼졌어요. 그 아버님이 잡으신 강도있죠? 그인간이 뭐 산재로 장애를 입었는데, 기초수급자인 모양이에요. 생계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글을 올렸나봅니다. 흥기도 없었다고 하고.. 금품만 갖고 나올 생각이었나봐요, 아들이 올린 거 보면.. 근데 이게 유명해져서.. 저희 학교 애가 댓글을 달았나봅니다. 그래서 애 신상이 돌아다니는거고.. 가해자 학생 말을 들어보면 지들이 자식 대신에 복수한다고..

[화면 전환 - 나레이션 이어지며]

S#. 11 회상 - 교실

교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 이전에 딸을 축하해주던 친구들이 반 아이들과 다같이 세한 표정으로 딸을 올려다본다.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닌, 진심으로 범죄자를 보는 듯 하게)

아이들의 반응에 당황하는 딸.

친구3: (진심으로 실망한 듯) 00아.. 유튜브 보니까 니네 아빠 영웅 아니던데?

딸 : 어..??

가해자 1: (화장을 고치며)영웅은 무슨ㅋㅋ 그냥 한 가정을 망쳐놨더만.. (딸을 쳐다보며)너네집 아무것도 안털리고 아무도 안다쳤다며. 그집은 어떡하냐?

반친구 1: 근데 진짜 청원도 올라왔던데..? 살인마 다시 재수사하라고...

딸: 아니 그게 무슨소리야..? 애들아 왜그래 장난치지마 ㅋㅋ..

가해자 3: (갑자기 큰소리로) 와.. 진짜~ 살인 동조하는 년이 같은반이라니.. (문 가까이에 앉아있던)

가해자 1: 우리도 영웅놀이냐 해볼까? 불쌍하잖아 그 아저씨 아들이

가해자 4: 놀이가 아니지. 법도 정의의 편으로 바뀌었잖아. 법이 이래야지. 무고한 시민이 죽었잖아.

가해자들 딸에게 다가선다

가해자 4: (딸에게 다가서며) 안그래?

놀래서 뒷걸음질치다, 주저앉는 딸. 아이들이 딸을 내려다본다.

딸이 다급한 마음에 친구들을 쳐다본다. 자리에 앉아서 실망한듯 경멸하며 딸을 쳐다보는 친구들. 가해자3이 딸을 발로 걷어차며 머리채를 잡는다.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딸.

딸 : 아악!!

암전.

(장면전환)

S#. 12 교무실

충격을 받은 남편의 표정.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남편에게 선생이 말을 건다.

담임 :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는 남편.

딸의 옷, 몸, 얼굴이 엉망진창이다.

딸이 남편을 바라보며, 울면서 억울한듯 말한다.

딸 : 아빠.. 나어떡해..?

남편, 분노하며 주먹을 쥘다. 이내 담임을 바라보며 말한다.

남편 :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따분하고 무관심한듯한 표정의 선생. 한숨을 쉬며 이내 말을 이어간다.

담임 :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죠? 법이 바뀐거.. 사적보복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이젠.

남편 : 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처벌이 안된단거죠?

담임 : 이게.. 원래는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데요, 과잉방위가 없어지면서 모두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남편 : (말을 끊고 발끈하며) 이게 정당한 사건입니까???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담임 : (짜증난듯) 하.. 진정하시고요, 원래는 침해의 현재성이랑 부당성이... 아니, 됐구요, 쉽게 말하자면 폭력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남편 : 뭐라고요?

담임 : (말을 끊듯이) 일정 사유에 대해서는요. 말그대로 과잉방위가 합법이 된 겁니다. 저희도 경찰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처벌이 안된대요. 애들인 것도 있고, 사적보복으로 볼 수 있어서 어렵습니다.

남편 : (기가 차고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 말이 됩니까? 그럼 애는 어떡합니까? 우리 애가 당한 거는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보상해주냐고요!

담임 :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요, 법은 이용해야 합니다.

남편 : 뭐요?

담임 : (진심인듯,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냉소적으로 살짝 웃으며) 정당방위요. 사적보복입니다. 아버님이요.

남편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선생을 바라보다, 아이를 바라본다.

S#. 13 학교 교실

쉬는시간, 교실 문을 열고 남편, 아내가 함께 천천히 들어선다. 담임은 문쪽에 기대어 서 있다. 해맑게 웃고 떠들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아이들은 이내 남편이 온 것을 눈치채고, 조용해진다. 아이들이 일제히 남편을 바라본다. (무시하는듯, 흥미로운듯, 두려운듯)카메라에 시선 고정.

아이를 생각하며 울화가 치밀어 오른 채, 남편의 결정을 기다리는 아내와, 따분하게 남편의 행동을 기다리는 담임,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정의와 아이들을 향한 복수 사이 갈등하는 남편.

[복도]

짹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가(혹은 학교 외관) 보인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는다.)

S#. 14 학교 운동장 (초저녁)

아내, 남편, 딸, 집으로 돌아간다.

S#. 15 집 화장실

딸이 몸의 상처를 물로 씻는다. 더이상 지워지지 않는 채 암전.